

-N수의 어려움★ (N수가 인생에서 가지는 의미)

N수가 인생에서 가지는 의미는 시행착오들을 이겨내면서 온다. 이 모든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힘이 생기고, 게으르고 나약했던 자아가 성실하고 강한 자아로 변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이 생긴다.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을 대처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된다.

하지만 무지성으로 N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려다보면 너무 힘들다. 근육운동을 할 때도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이 어느 부위를 자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없는 운동은 고강도 노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2년간 재수, 삼반수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미리 말해주겠다. 이걸 나와 내 주변의 사례에 국한된 사례로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나를 발판 삼아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분명 줄이고, 빠르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막연함

나 역시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나는 미리 재수를 미리 경험한 선배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한테 재수를 하면 무엇이 남는지, 무엇을 잃는지 말해 줄 사람이 없었다.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성적', '학원'과 같은 불분명한 이야기 뿐이었다. 그래서 나도 불분명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1월부터 재수를 시작했는데, 이런 막연하고 불안한 마음이 4월까지 나를 괴롭혔다. 그러다 문득 재수학원 화장실에서 혼자 양치를 하는데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불안정했고 무서웠다. 그래서 뜬금없이 혼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이때 조금 울다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다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겪었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편해진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막연함으로 공부하다간 수능 대박은 고사하고 끝까지 완주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태도를 바꿨다. **1년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기로 했다.** 이렇게 막연해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고민해봤자 죽도 밥도 안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렇게 마음먹은 이후로 막연함이 나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수능 날 까지 나는 학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